

신앙의 키치족 🍷

어느 날, 우리 교회 학생회 회장인 기태가 '똥싼 바지'를 입고 왔다.
허리띠는 아슬아슬한 부분에 살짝 걸쳤고 늘어뜨린 바지는 온통 거리를 쓸고 다녔다.
신발은 또 어찌나 큰지. 더욱 가관인 것은 기태와 친한 태우는 귀를 뚫고 귀걸이를 하고 나
타난 것이다.
할 말을 잃은 나는 그저 멍하니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는 언제부터인가 키치족이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극히 소수의 학생이지만 키치족은 '알마니'나 '베르사체' 등의 고급 브랜드를 모조한 옷들을
남대문 시장에서 구입해서 입는다.
그리고 압구정동이나 홍익대 앞에 있는 고급 카페에서 이 가짜옷을 입고 진짜인 양 뽐내다
가 브랜드를 척도로 데이트 신청을 하는 이성들을 골려먹는다고 한다.

키치(Kitch)란 '예술적 가치가 없는 모조 문화 상품'을 뜻한다.
키치족은 모방 속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찾는 속성이 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키치족은 개성 추구에 앞서 모방을 한다는 점이다.
내가 보기에 좋으면 남의 옷이나 신발, 행동이나 버릇 등 어떤 것이든 따라하려는 것이 요
즘 청소년들의 세대다.
특히 연예인들의 그것은 더더욱 선망의 대상으로 청소년들에게 다가온다.

나는 기태나 태우를 막무가내로 나무랄 생각은 없다.
다만 너무 외형적인 것에 민감한 청소년들이 이것만은 알았으면 한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이다(삼상 16:7).

성경은 신앙도 경건의 모양만을 추구하는 '신앙의 키치족'이 있음을 경고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개인적 만남이 없는 맹목적인 교회 봉사와 신앙 행위는 키치족이 하는
일이다.
그들은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며 주님은 이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신다(딤후 3:5).

권영삼/ 전 빛과소금 기자

☘ 청소년과 함께하는 QT나라 , 「 새벽나라 」 제공
<http://isena.com/>